칼 럼

장 기 채 주 필

치매노인 하루 21명씩 실종된 나라

지금 이 나라는 치매노인 실종사고가 연간 8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울한 소식이다. 특히 치매노인들은 실종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3년 실종신고 된 치매환자의 수는 총 7983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노인으로 추정되는 실종치매환자의 수는 2010년 6569명에서 2011년 7604명으로 급증한 뒤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20명이 넘는 치매노인이 실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게 하지 말자. 가벼운 운동 반복해서 시키고 야외활동 도와주자. 환자와 언쟁피하고 사진첩 보여주며 추억 얘기 들려주자. 이 말은 노인전문병원 의사들이 전하는 한결같은 치매 간병 가이드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인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65세 이상 치매(알츠하이머병) 환자 인구는 55만 명을 넘어섰다. 100만 명을 돌파하며 20년 마다 거의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하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에게 지출된 진료비를 분석하면 2006년 10만5천여 명이던 환자가 2011년에는 31만2천여 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그나마 적극적인 진단으로 치매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노인은 뺀 수치다.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앙은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4개 회원국 중 자살사망률과 자살증가율이 세계 1위다. 저출산율도 세계1위다. 행복지수는 26위다. 현재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 스트레스가 자살로 또는 치매로, 미래에 대한 것이 출산율로 드러난다.

이대로라면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노인 치매 대책을 긍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치매 환자의 급증은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대책도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치매 환자는 기억 장애에서부터 시·공간 지각장애, 성격변화는 물론 우울, 무감동, 무관심, 초조, 불안 등의 행동 심리증상까지 동반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완치약도 아직 없다.

조기 발견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환자를 혼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간병인이 꼭 있어야 한다. 치매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간병하는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준다. 치매를 앓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던 노인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하려한 사건도 우리는 보아왔다. 치매환자는 감정적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말기 치매환자라도 돌봐주는 사람의 말투나 눈빛을 느낀다.

치매환자는 기억은 잃어가지만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은 오래도록 남아 있다고 한다. 이는 환자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표현이나 행동에 의해 증상이 호전 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일 것이다.

반대로 치매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 표현을 보일 때는 다른 욕구나 통증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원인이 제거되면 자연히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해 전문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치매는 치매환자의 가족(간병인)이나 전문 의료진, 사회복지 관련종사자, 공무원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원 등 요양 기관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인권유린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제는 요양원 등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인식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이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은 주민등록증(사본)을 환자 주머니에 꼭 넣어주어야 큰 변을 막을 수 있다.

社 說

'장의차 통행료' 엄단해야

장의차 통행료 갈취 사건이 표면화되지 않았을뿐 이 지역에서도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과되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죽은 송장이 마을 앞을 지나서는 안 된다는 풍습을 이유로 장의차 진입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희안한 것은 시신이 마을 앞을 지나서는 안 된다면서 금품을 제공하면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논리가 어디있단 말인가.

그래서 시골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을 듣는 것이리라.

상을 치르니까 큰 소리 못 낼 것이라는 얄팍한 술수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자치단체나 경찰이 수수방관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충남 부여에서의 장의차 통행료 갈취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같은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해당 마을주민이 '현대판 화적떼'로 지칭되는 등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 전국지가 처음 보도한 '통행료 500만원 내라… 장의차 2시간 막은 마을주민들' 기사 한 꼭지에만 포털사이트 등에서 댓글과 공감표현 5만여건이 올랐다니 누리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의문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사회의 심각한 묵은 병폐 하나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개발 호재로 불로소득을 얻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시골에서도 알게 되고 기회가 되면 한몫 잡자는 심리나, 마을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근원적인 처방은 사람이 만나면 웃고, 인사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인간관계가 사회시스템으로 복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나 경찰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격히 단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나 홀로 여성등산객' 범죄 예방수칙 준수해야 한다

한 여름의 무더위가 물러가면서 서늘한 가을 산속의 솔 향내음을 마음껏 마시고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 등 시간에 관계없이 가까운 산을 찾는다.

전업주부들의 경우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과 남편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혼자 또는 지인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하는데, 가끔 산을 오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지정된 코스가 아닌 좁은 샛길을 여성 혼자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겠다는 우려의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지난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발생한 끔찍하고 잔혹한 묻지마 살인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한 광주 어등산 살인사건,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수락산 살인 사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폭행해 숨지게한 사패산 살인사건 등은 나 홀로 등반이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여전히 범죄의 사각지대로 노출되어있음을 절실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 나 홀로 여성 등산객을 대상으로 "몸매가 환상적이다" 위 아래로 훑어보며 언어, 시각적인 행위등은 물론이고 "엉덩이를 툭 치며 고의적인 신체접촉을 유발하는 행위" 등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나 홀로 여성 등산객들의 경각심이 부족한듯하여 안타깝기만하다.

정신이상자, 사회불만 생계곤란 등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행위자로 인한 나 홀로 등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한 살인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은 여성 등산객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여성 혼자서의 등산은 우리 주위에 예기치 못하는 범죄행위 대상으로 얼마든지 노출되어있고, 성범죄자의 유혹의 대상이 될수있으며 또한 남이 아닌 내가 그 표적이 될수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 산을 찾고, 자연을 즐기며 삶의 양식을 얻고자 산에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자기관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급적 야간 산행은 지양하고 등산객이 많은 낮 시간에 등산을 해야 한다.

혼자보다는 둘 이상의 동료와 동행하여 좁은 샛길이 아닌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호루라기등을 소지하여 위급사항 발생시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하며 휴대폰을 소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한다.

안전한 등산을 위한 나 홀로 산행 여성등산객은, 등산로 범죄 예방수칙을 절대 준수하고 확행하여 이를 삶의 지혜로 삼고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자세가 절대 필요할 것이다.

김주섭 / 강진경찰서 112상황팀장

신문으로배우는 千 字 文

庶	여러	서
幾	몇	기
中	가운데	중
庸	떳떳할	용

庶幾中庸

▷뜻: 어떠한 일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일하면 안 됨.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